

경남 남해안 관광 투자유치 활동 펼쳐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부산항 세미나에서 신항 배후단지 투자 장점 홍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부산항 세미나에 참석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해안 관광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항만공사와 니가타현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활용 성공사례를 일본기업 나이가이트랜스가 발표하는 등 부산항의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동북지역 물류기업, 제

조기업, 항만 관련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경사무소는 세미나에 참석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 배후단지의 첨단시설과 인프라 등 입주 여건을 소개하고,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재투자 사례 안내를 통해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투자 강점을 홍보했다. 아울러 2025년 1억 6,668만 명이 방문한 경남의 관광환경과 통영 스탠포드호텔 투자유치 성공사

례를 설명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소개하며 기업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수진 사무소장은 "부산 신항을 이용하는 일본 환적화물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본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물류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투자도 일본기업에 홍보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지역 대학 인재의 현지 취업을 넘어 기업의 발전기금 환원으로 이어지는 '지식학 선순환'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원강산업(주)에서 경상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이즈 사업 취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강산업(주)이 지난해 9월 경상국립대에 기탁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최성룡 기자

고교 야구부 전지훈련지로 주목 받는다

울산 중구야구장, 군산 상일고 동계 전지훈련 성료...경제적 파급효과



울산 중구야구장이 겨울철 고교 야구부의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군산 상일고등학교 야구부가 중구야구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 상일고 야구부는 2023년부터 4년째 중구야구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하며 전지훈련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

다. 올해 동계 전지훈련에는 군산 상일고 야구부 선수 60여 명이 참여했다.

선수단과 가족, 지도자 등은 훈련 기간 울산에 머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고 특산물 등을 구매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중구야구장은 겨울철 기후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울산에 위치해 있고 청소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전국 청소년 야구단의 훈련 문의가 잇따

르고 있다.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은 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빗나간 공(파울볼) 이탈 방지망을 설치하고 각종 노후시설 등을 보수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구야구장 인근 합월구민운동장을 체력 훈련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김종윤 이사장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시설 운영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중구야구장이 동계 전지훈련지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위생·안전 관리에 나선다.

영양사가 없는 이용자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144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생·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호근 기자

5만 그루 편백숲에 건강과 행복을 담다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나무심기 좋은 이른 봄을 맞아 구목(區木)인 '편백'을 주제로 한 공식 노래 '편백숲길 함께 걸어요'를 제작·공개했다.

이번 노래는 달서구의 대표 자연자산인 편백숲의 가치와 의미를 구민과 공유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미지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구정 홍보 콘텐츠다.

달서구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녹색도시 정책과 편백숲 조성 성과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곡의 작사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맡았으며, 음악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작곡에 참여했다.

여기에 AI 보컬 기술을 접목해 세대와 취향의 경계를 넘어 누구

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편백은 달서구의 상징수로, 피톤치드가 풍부해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건강수로 알려져 있다.

달서구는 와룡산 일원과 생활권 녹지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5만 그루 이상의 편백나무를 식재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편백숲길과 힐링 공간을 꾸준히 조성해 오고 있다.

노래 「편백숲길 함께 걸어요」는 '우리 함께 걸어요 편백숲길요', '편백나무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네'라는 가사를 통해 구민이 함께 걷고, 심고, 키워가는 공동체의 미래를 따뜻하게 표현했다.

후렴구에는 '편백산책으로 건강과 행복 쟁겨요', '피톤치드 우릴 유혹하네'라는 메시지를 경쾌한 리듬에 담아, 편백숲이 주는 상쾌함과 치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달서구는 이번 노래를 구 대표 축제와 환경 캠페인, 걷기 행사, 구정 홍보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제작·공개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구목 노래 제작은 편백숲 조성이라는 물리적 성과를 넘어, '미래', '행복', '공동체', '건강'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윤석 기자

경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초등방학 돌봄터와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누리뽕뽕' 개통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월 4일(수) 영주시 '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돌봄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누리뽕뽕' 개통식에 참석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유휴공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집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돌봄이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학 중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우리동네 초등방학돌봄터'를 운영하며, 이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지역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가 방문한 영주 '우리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이즈 사업 취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가 방문한 영주 '우리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이즈 사업 취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현장이다. 해당 돌봄터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기초학습 보조와 독서, 창의놀이, 체육활동, 무료 점심 식사를 포함한 종합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26년 겨울방학 동안 포항, 구미, 영주 등 도내 11개 시군 31개소를 초등방학돌봄터로 지

정해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누리뽕뽕' 개통식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산어촌·벽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누리뽕뽕'은 도민 명칭 공모로 선정된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한 저출생 대

응 돌봄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 34개소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용품 대여소의 노후 장난감 4,600여 점을 교체하는 등 돌봄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누리뽕뽕' 특장 차량이 신규 장난감과 유아용품 674종, 돌상·백일상 18점을 갖추고,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경북 북부권 8개 시·군 취약지역 18개 정착지를 주 4회 순회한다. '누리뽕뽕'은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16일부터 정규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후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도정 역량을 저출생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부산 위상과 품격 드높인 분 모십니다 명예시민 공모

부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추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에 대한 애정으로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명예로운 부산시민으로 선정하기 위한 「2026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추천 공모」를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제도는 1966년부터 시행됐으며,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제·과학·문화·기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

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모는 추천을 통해 신청받으며, 추천권자는 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유관기관·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는 4월 선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명예시민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명예시민증(패)과 기념품, 명함, 시 주요 간행물 등이 제공되며, 시가 주최

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에 초청되는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부산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는 282명으로, 관료, 문화·예술인,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주한 미해군 사령관으로 근무한 '닐 코프로스키'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 연구단장 '악셀 팀머만'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전(前) 국가대표 감독 '거스 히딩크'(2003) ▲영화배우 '톰 크루즈'(2013) ▲여자프로골프(LPGA) 선수 다니엘 강(2019) ▲영화 '기생충' 영어자막 번역가 당시 파켓(2020) 등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모시는 것은 그 공로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부산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유우 기자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재축 마무리 준공

98.6억 투입해 2월 3일 준공 완료, 설 명절 전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



대구광역시는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소실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월 3일 준공했다.

이는 당초 3월로 예정돼 있던 준공 시점을 설 대목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긴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5일 농산A동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건물 전체 연면적 16,504㎡ 중 8,252㎡(50%)가 피해를 입고, 중도매인 점포 68개소가 전소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대구시는 화재 직후 임시 경매장 운영과 피해 상인 지원, 화재 시설 응급 복구 등을 추진하며 화재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도매시장 기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2023.5월 원인미상 최종결론)되면서 응급복구(재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3년 3월 재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신속히 거쳐 2025년 1

월 공사에 착공했다.

당초에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유통종사자들의 '설 명절 이전 준공' 요청을 반영해 대구시는 2025년 말 추가경정 예산 확보와 공정 일정 조율 등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준공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재축사업은 농산A동 경매장(연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약 98억 6천만 원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70억 6천만 원은 화재보험금으로 충당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까지 사용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내화구조 적용, 불연재 사용 및 소방설비 확충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시공했으며, 재할용과 철거가 용이한 철골구조로 건립해 경제성 또한 확보했다.

한윤석 기자

김해시, 부전-마산복선전철 연내 조기 개통 촉구했다

김해시 상공계와 시민들은 4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전-마산복선전철의 연내 조기 개통을 강력 촉구했다.

부전-마산복선전철은 국가 일 반철도로서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장유역을 거쳐 창원 마산역까지 약 51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시설사업이다.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해 2021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던 중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수차례 공사기간 연

장으로 2025년 하반기에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공정을 99%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사와 피난연결통로를 두고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공사 기간을 올 12월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설명한 오는 6월 개통이 또 다시 지연된 것이다. 철도망 개통 시 부전-마산 간 운행시간이 90분에서 30~40분대로 단축되는데

부산시, 창원시 간 이동량이 많은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5년째 무산된 셈이다. 또 2019년 건축공사가 완료된 장유역이 방치되고 있어, 철도 개통 기대감으로 인접 지역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유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지 등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주민들의 계획들도 답보상태이다. 이에 김해상공회의소, 장유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결

단으로 연내 조기 개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남도, 창원시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장유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기다려 온 만큼 정부도 국가철도망 구축의 취지에 맞게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호소했다. 노은식 회장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권 경제 공동체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룡 기자